

곡성군, '구석구석 문화배달' 지역 문화 활성화

11월까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27~29일 섬진강 마을영화제 열려 섬진강 지역 소멸 기후위기 논의 마을공동체 실천 모색 문화운동

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문화 활성화에 나섰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먼 단위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국악공연, 참여예술행사, 공동체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옥과면 행사에서는 월파관에서 약 20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그룹 '예락'의 공연과 김대중

100주년 기념영화 '길 위의 김대중' 상영이 있었다.

1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근현대 100년사를 조명하는 영화를 통해 역사적 공감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읍에 집중되었던 문화예술 인프라가 먼 단위 구석구석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주

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섬진강 마을영화제'를 개최한다. 곡성읍 작은영화관과 미실란, 옥과면 월파관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는 섬진강 지역의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를 다루며 마을공동체의 삶을 조명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곡성=김대영 기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함평군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함평군 보건소가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 2일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에서 AED 설치 관리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센터인 대한안전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사용 방법 △응급처치 시 행동 요령 △가슴 압박 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응급처치 교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며 "앞으로도 매년 전문교육을 통해 군민의 안전에 힘쓰고 일상 속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곡성군, 서울서 직거래 장터 연다 10일-11일 농특산물 80여종 선배

곡성군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추석을 맞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 관악구 봉선로 317에 위치한 은천교 삼거리 분수대 공원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곡성군 재경향우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장터에는 9개 농가(단체)가 참여해 8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곡성 명품 멜론을 비롯해 햅쌀, 흑찰옥수수, 토란, 토란대, 고사리, 참기름, 들기름, 도라지, 알밤, 꽃감, 갈매랭이, 꿀, 건죽순, 쌀 조정, 풍가루, 청국장, 된장, 햇땅콩, ABC즙, 부각 등이 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 농가의 소득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곡성 농·특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햅쌀 500g을 증정하는 소비촉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소소한 공생 어울림장터' 성황 담양군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

담양군과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3차 어울림장터가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일에 걸쳐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소소한 공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기업, 주민공동체, 소상공인 등 27팀이 판매자로 직접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직접 만든 수공예품, 먹거리, 추석 맞이 농산물 등 다양한 판매 공간과 각종 체험 공간이 마련돼 담양을 찾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쓴 덕담 캡슐 뽑기, 죽녹원 일대와 어우러진 포토존과 휴식 공간 조성으로 행사장을 풍성하게 채웠다.

담양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해 주셔서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어울림장터가 관내 공동체, 소상공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취약계층 옥내급수시설 교체 영광군, 경로당 등 6개소

영광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거주주택 14개소와 양로시설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옥내급수시설의 교체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배관 등의 노후로 발생한 옥내누수로 많은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고가의 공사비로 인해 누수탐사 및 배관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경로당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올해에는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 옥내급수시설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양로시설의 급수장치를 교체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여건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상하수도사업소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턱없이 낮은 공사비로 옥내누수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는 사업비를 크게 증액하여 취약계층 거주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수도계량기 검침 시 누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조사를 병행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울림장터에서 추석 맞이 농산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영산강 문화공원 일원에서 어울림장터를 운영했다. 담양=김도윤 기자

영광군, 추모공원 명칭 선정 공모

13일까지 주민 대상 투표 진행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군남면 대덕리에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가칭)'의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10일간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추모공원 명칭 공모를 통해 접수된 85편의 응모작들 중 1차 심사로 선정된 10편과 기존 사업

명칭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포함하여 총 11편의 명칭을 놓고 영광군 누리집(열린군정→참여마당→설문조사)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부 검토 후 9월 중에 정식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 명칭으로는 △영광군 천년의빛 추모공원 △영광 추모의 숲 △영원의 뜰 △영광 빛누리 추모공원 △천년기억공원 △영면원(靈眠園) △영광상

사화추모원 △영광 위안의 숲 △하늘바람(뿔) 추모공원 △하늘길영광추모공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등 총 11편으로 1인당 2편씩 선택 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모공원의 명칭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중장년 마음돌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관내 중장년 남성 대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관내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장년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년기의 남성은 성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노화와 무력감,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 및 자녀·노부모 부양·자신의 노후 준비 등 경제적 부담감이 심화되는 시기로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에서는 50~64세 남성을 대상으로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4회기로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061mind.or.kr/hwasun)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1회기 '나 이해하기' 스트레스 측정, 인생 곡선 그리기 △2회기 '마음 돌봄'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음 근육 키우기 △3회기 '신체 돌봄' 건강한 신체 근육 키우기 △4회기 '나에게 주는 선물' 주제로 나만의 향기 찾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됐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61-374-4600으로 문의하면 자세

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마라 보건소장은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화순 관내 중장년 남성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마음 근육을 통해 행복한 중장년기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QR code and '전일보' logo with contact information: Kakao Talk: 전일보, E-Mail: jebo@jnilbo.com